

2011학년도 2학년 햇반 움직이는 학교

나를 깨우고 함께 나누는 재미난 여행



언 제: 2011년 6월 14일(화) ~ 6월 29일(수) (15박 16일)

어디서: 극단 “노뜰”, 여주 ‘신록사’, 동해, (원주)한알학교

누 가: 강도운, 권산, 권수정, 김고운, 김소아, 김한새, 안현선, 양성민, 양지훈,
오해주, 유준상, 은형근, 이건산, 장혜린, 전진, 정나린, 조영서, 조하한,
한별, 황소윤, 김채현, 오세영, 박후조, 김태진, 손진근.

제 천 간 디 학 교

차 례

2011년 2학년들의 ‘움직이는 학교’	--- 3
움직이는 학교 일정표	--- 4
하루일과	--- 5
우리가 준비하는 밥상	--- 6
움직이는 학교 이런저런 생각	--- 7
극단 노뜰	--- 8,9
연극	--- 10
마임	--- 11
배경음악	--- 11
춤	--- 12
원주	--- 13
신록사	--- 14
동해	--- 15
망상해변	--- 15
한알학교	--- 16
이달의 역사	
6월 민주항쟁	--- 18
6.15 남북 공동선언	--- 19
나를 깨우는 행복한 하루	
함께 쓰고 나누는 이야기	--- 21 ~ 35
2011년 햇반 움직이는 학교, 함께 정리하는 시간	--- 36
함께 부르는 노래	
꿈찾기	--- 37
노래만큼 좋은 세상	--- 38
평화가 무엇인냐	--- 39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40
마음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 39 ~ 44

2011년도 2학년들의 『움직이는 학교』

2학년 공통의 배움 주제는 “자아정체감 찾기와 이를 통한 자기이해와 우리 이해”입니다. 올해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후용공연예술센터 노뜰로 연극체험하러 갑니다. 이 주제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프로그램이 바로 연극체험이라 여겨집니다. 멀리 원주라는 새로운 땅에서 연극이라는 매체로 자신을 더욱 성장시켜나갈 2학년들에게 애정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1. 언제: 2011년 6월 14일(화) 오후 4시 ~ 6월 29일(수) 오전까지

① 노뜰 체험: 6월 14일(화) 오후 4시 - 6월 26일(일) 오전

* 학부모님 오시는 날: 6월 25일(토) 오후 7시 발표공연 예정

② 신록사 텀플스테이: 6월 27일(월)오전 - 6월 28일(화) 오전

③ 여행(동해 망상오토 캠핑장): 6월 28일(화)오전 - 6월 29일(수) 오전

* 해산: 6월 29일(수) 오전에 각자 집으로

④ (원주)한알학교 교류: 날짜 협의중

2. 어디서: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389번지 후용공연예술센터 <극단 노뜰>

3. 누가: 중2 학생 22명, 교사 3명 (손진근, 김태진, 박후조)

4. 무엇을: 연극체험, 절체험, 여행. 한알학교 교류.

5. 준비물

- 모둠준비물: 코펠 1세트(5~6인용), 버너 2개, 칼, 도마, 양념류 등
- 개인준비물: 침낭, 휴대용 베개, 세면도구(친환경 세제), 공책, 필기구, 수저, 컵, 수건 2~3개, 샌들이나 슬리퍼, 운동화, 반팔 티셔츠(2~3장), 속옷(4~5벌), 바지(2~3장), 붕가을 점퍼(1벌), 운동복 상하의(1벌), 양말(4~5켤레), 반바지, 비옷이나 우산, 모자 등
- 그 외: 함께 읽을 책 2~3권

6. 열정적인 배움을 위한 약속

- 만화책, MP3, 손전화, 디지털카메라, 판타지소설, 무협지, 카드 등 『움직이는 학교』 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은 가급적 가지고 오지 않기로 합니다.
-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먹거리를 싸들고 오지 않습니다.
- 돈은 한 달치 용돈과 차비만 가져오시고 샘들께 맡깁니다.

7. 연락처

손진근 선생님	010-8561-2491		
김태진 선생님	010-4807-0681	박후조 선생님	010-3077-2747
극단 노뜰	033-732-0827	신록사	031-885-2505

움직이는 학교 일 정 표

하 루 일 과

시간	일정	비고
07:30~	일어나기, 씻기	
08:00~	아침밥	식사당번 뒷정리
09:00~	아침열기	아침독서도 함께 합니다.
09:30~	청소	담당구역 청소
10:00~	오전 프로그램	
13:00~	점심밥	
15:00~	오후 프로그램	
18:00~	저녁밥	
20:00~	일상나누기	전체 모임
21:00~	잘 준비	
23:00~	불끄기	

- 식사당번: 아침과 점심 식사 후 뒷정리 당번은 모둠별로 돌아가면서 정합니다.
- 아침열기: 학교에서와 마찬가지로 전달사항과 준비, 아침독서를 함께 합니다.
- 청소는 정해진 시간에 맡은 담당구역을 청소합니다.
- 저녁밥은 모둠별로 준비합니다. 쌀과 김치는 제공합니다.
- 일상나누기: 하루동안 있었던 일과 생각,느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학생,쌤 모두가 함께 합니다.
- 취침은 23시00분부터이다.
다른 사람(노플선생님, 친구, 간디선생님 등)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시간약속은 꼭 지키도록 합시다.
- 배움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한다.
- 일과 중 비는 시간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 폭력, 음주 등 생활과 관련한 규칙을 여기면 학교에서 규칙을 적용한다.
- 모든 음식을 대할 때는 고마움 마음으로, 남기지 않고 다 먹는다.

우리가 준비하는 밥상, '7,500원의 행복'

움직이는 학교 기간 중 저녁은 우리들이 직접 해먹기로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1학년 때 보다 부쩍 자란 우리들을 맛깔스럽고 건강한 저녁식사준비는 물론 학교 식사당번의 경험을 살려 설거지도 뒷정리도 깔끔하게 잘 해봅니다. 쌀과 김치는 제공되고요, 한 사람당 한 끼 재료비가 1,500원. 모둠별로 5명씩 7,500원, 4명은 6,000원으로 맛있고 몸에도 좋은 식단을 꾸려보아요.

- _____ 조 오해주, 김소아, 한별, 조영서
- _____ 조 권산, 이건산, 정나린, 황소윤, 강도운
- _____ 조 양지훈, 안현선, 권수정, 장혜린, 조하한
- _____ 조 양성민, 은형근, 김고운, 오세영
- _____ 조 유준상, 김한새, 전진, 김채현

- * 모둠별로 장을 보고 저녁을 준비한다.
- * 쌀만 지급하고 모든 것은 모둠이 알아서 한다.

날짜	주식	국	주반찬	필요한 재료(양과 금액도 기록)	비고
6/15수					
6/16목					
6/17금					
6/18토					
6/19일					
6/20월					
6/21화					
6/22수					
6/23목					
6/24금					
6/25토					
6/26일					

『움직이는 학교』 이런 저런 생각들

& 간디학교에서의 움직이는 학교는 ooooooo 이다 이유는?

2011년 움직이는 학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나의 느낌과 생각은?

* 이번 움직이는 학교에서 가장 기대되는 활동은 무엇이고 그 이유는?

\$ 나에게 움직이는 학교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친구, 선생님, 노플 선생님, 부모님 등등)

<극단 노뜰>

“연극은 곧 삶이다”



원주시 문막읍 후용리 389번지에 위치한 노뜰은 젊고 패기 넘치는 예술가들의 집단이다.

예술의 고유성을 이루기 위한 이들이 1993년 창단, 실험적인 공연과 새로운 연극 언어를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극단 노뜰이 지향하는 새로운 연극 언어는 현재 절대적 무대언어인 ‘말’ 뿐만 아니라 인간이 활용 가능한 교감의 수단들 중에서 무대 언어로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언어들, 소수에 의한 특정한 교감 매체가 아닌 소리, 움직임, 비주얼 등 세계가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연극 언어이기도 하다.

극단 ‘노뜰’의 연극철학은 다름 아닌 연극의 보편성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세계의 다양한 관객,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배우, 무용수, 연주인 등과의 교류를 통해 우리 연극의 세계화와 더불어 세계의 연극의 중심에 서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서로 다른 모든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어떤 문화권에 관객과 만났을 때도 전통을 통한 신비주의 연극이 아닌 보편성을 토대로 정서를 나눌 수 있는 무대를 통해 가능해 질 것이다.



<연극>

배우가 각본에 따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을 말과 동작으로 관객에게 보여주는 무대 예술. 연극은 음악·무용과 같이 공연(公演)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공연예술 또는 무대예술이라고 한다.

연극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로서 흔히 배우·무대·관객, 그리고 희곡의 4가지를 든다. 배우는 연기자로서 연극의 핵심이고 연극이 ‘살아 있는 예술’임을 밝히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된다. 그러나 배우를 대신해서 인형(꼭두각시)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고 가면(탈)을 씌으로써 인물을 가장하기도 한다. 무대는 연희하는 장소로서 옥외(屋外)의 놀이판, 고풍에서 현대식 극장무대에 이르기까지 각양 각색이나 연희하는 장소로서의 개념은 연극에서 빼놓을 수 없다. 관객은 단순한 구경꾼에서 연극에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하며 무대와 객석의 호흡은 공연의 성과를 언제나 좌우한다. 희곡 또한 즉흥적, 유희적 성격의 단순한 줄거리 정도에서부터 고도의 문학적 표현을 담은 극문학(劇文學)에 이르기까지 성격이 다양하나, ‘드라마’에는 사람(등장인물)을 중심에 두고서, 그들 사이의 관계(대립·갈등)가 꾸며내는 일정한 ‘이야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희곡 또는 극본(劇本)은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한다.

이상의 4가지를 연극의 기본요소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연극에는 많은 부수적 구성요인이 따른다. 무대장치(미술)·조명·음향효과·춤이 따를 경우의 안무, 음악 등 연극은 인접하는 미술·무용·음악 등 여러 예술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연극을 두고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요인을 잡다하게 끌어들이어서 연극이라는 하나의 예술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극의 종합성은 필수적으로 그것을 보완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 기능이 현대 유럽 연극에서 연출(演出)이라는 명칭으로 굳어졌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전체를 통괄하는 것이 그의 기능이나, 연출의 기능 자체는 예부터 있어서 연기자 가운데 책임 있는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대적 발전에 따라 연출의 기능은 점차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미술가·음악가 또는 안무가가 연극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자의 독립적 기여(寄與)가 아니라 연출자의 면밀한 검토의 바탕 위에서 창조적으로 참여한다는 형식을 취한다. 연출자는 때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나 희곡을 제공하는 극작가와와의 관계는 보다 미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희곡이란 원래 상연대본적(上演臺本的) 성격을 강조하는 연극적 측면과 독립된 문학작품으로서의 문학적 측면을 아울러 가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양면성(兩面性)에서 오는 형식상의 제약과 동시에 문학적 표현의 깊이를 배우의 신체를 통해 구체화시킬 수 있는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즉, 희곡은 연출의 기본적 텍스트로서 숙명적인 한계를 지니는 동시에 그 한계를 뚫고 배우와 관객이 다같이 상상력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도약대(跳躍臺)의 구실도 한다.

연극은 배우의 예술이기 때문에 ‘매일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일회성(一回性)을 지닌다. 따라서 연극의 생명은 언제나 새롭다는 데 있고 공연이 아무리 되풀이된다 해도 동일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예컨대, 영화같이 영상(映像)에 바탕을 둔 복제예술(複製藝術)과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다. 바로 여기에 배우(무대)와 관객 사이의 살아 있는 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연극이 주는 감동은 아무리 판에 박힌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적이며 무대와 객석 사이의 상호작용에 바탕을 두는 것이 특색이다. 그러기 때문에 연극은 흔히 정서를 과잉방출하여 배우나 관객으로 하여금 감정의 절제를 잃게 하고 지성과 판단의 객관적 능력을 상실케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통속연극(通俗演劇)이 대부분 이런 부류에 속하며 싸구려 소일거리의 구실밖에 못한다는 말도 듣는다. 반면에 연극은 인간의 근원적 감정 깊숙이 파고 들어 그것을 드러내 보이는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원형적(原型的) 표출에도 특출한 솜씨를 보여준다.

더구나 연극은 그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위대한 극작가에 의한 뛰어난 비극 · 희극 등의 작품을 얻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공연예술과는 달리 지적(知的) · 사상적 · 사회적 내용을 담을 수 있었고, 인간을 변하지 않는 근원적 모습에서 뿐만 아니라 변전(變轉)하는 역사의 양상(樣相)에서 포착하는 데도 성공하였다.

<마임>

연극 · 연기의 한 형식. 어원은 그리스어의 미모스(mimos)에서 유래하며 ‘흉내’를 뜻한다. 원래는 촌극 등 잡극을 의미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만으로 표현하는 연기를 가르킨다. 현대에 이르러 프랑스의 에티엔 드크루가 희극적 요소가 짙은 기존의 판토마임과는 전혀 다른 진지한 예술로서의 새로운 마임을 체계화한 뒤부터 이를 신체마임 또는 현대마임이라 하여 판토마임과 구분한다.

판토마임 : 대표적인 예로 찰리 채플린. 말을 하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모습과 행동으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한다.

석고마임 : 사람이 석고처럼 몸과 옷을 하얗게 칠하고 굳은 것처럼 분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동상처럼 길가에 서 있기도 한다.)

핸드마임 : 영상을 보내면서 영상 앞에 손가락으로 사람을 표현하면서 마임을 하는 것. 영상은 상하좌우 어떻게 나와도 이어질 수 있다.

<배경음악>

BGM(back ground music). 주목적이 음악감상에 있지 않고 환경의 일부로서 제공되

는 음악. 백그라운드 뮤직, 환경음악, 산업음악이라고도 한다.

배경음악의 쓰임

- 영화나 드라마에서 특정주제에 맞게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고 대상이 되는 듣는 사람이 좀 더 마음에 와 닿도록 하는데 있다.

- 원래 작업중에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작업의 단조로움을 잊게하고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게 하는데 있다.

<춤>

춤 또는 무용(舞踊), 무도(舞蹈)는 음악 또는 박자에 맞춰 몸을 움직이는 예술적 행위이다. 사회적 상호작용 또는 표현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영적인 의식 또는 공연 등에도 춤이 이용된다. 예술의 관점에서는 미적(美的) 정서를 리듬에 맞춰 신체로 표현하는 공연예술이다. 춤은 또한 사람이나 동물 사이(예: 벌의 춤)의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방식을 말하는 데에도 쓰이기도 한다.

'춤을 춘다'는 것은 보다 대중적인 기술의 즐거움으로 이끌고, '보여 준다'는 것은 보다 고도한 기술수준으로 발전시킨다. 르네상스 이후, 인간은 무용을 생활의 직접적 실용(實用)으로부터 독립된 것으로서, 또 개인의 표현, 개성의 주장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민중적인 민속무용과는 방향을 달리한 예술무용(藝術舞踊)이 나타났다. 오늘날 무용은 시간적·청각적인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음악과 관련되며, 또한 공간적·시각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는 조형(造形)과도 접근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신체를 소재(素材)·매체(媒體)로 하는 점에서는 연극과도 친근성이 있는 시공성(時空性)이 있는 예술이라고 보고 있다. 예술로서의 무용은 언어나 문자의 게재 없이, 작자의 내적인 이미지를 직접 운동적인 심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그것의 표출(表出)·형성과 전달을 꾀하는 데에 독자적인 영역을 갖는 것이다.

** 사랑하라, 노래하라, 춤을 추라

사랑할 때는 미친 듯이 사랑하라.

노래할 때는 미친 듯이 노래하라.

춤 출 때는 미친 듯이 추라.

이것이 계산적이고 논리적인 것보다 훨씬 나으며, 악몽에 시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될 때에는 반대쪽으로 몸을 기울이라. 다시 균형을 회복하라.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이다.

- 오쇼 라즈니쉬의 <라즈니쉬의 명상건강> 중에서 -

<원주>

위치: 강원도 남서부에 있는 시

면적: 867.3km²

행정구분: 1읍 8면 16동

꽃: 장미

나무: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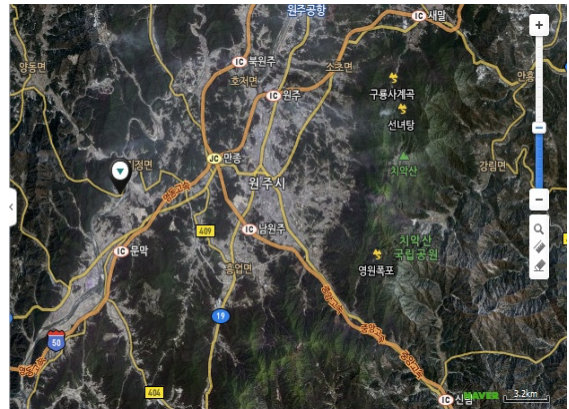
새: 꿩

홈페이지: <http://www.wonju.go.kr/>

인구: 301,101 명(2007년 기준)

인구밀도: 347 명/km²(2007년 기준)

가구수: 113,465 세대(2007년 기준)



경도 127° 54′ ~ 128° 03′, 북위 37° 17′ ~ 37° 24′에 있다.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강원도의 남서부에 있으며, 남북으로 길게 뻗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강기맥 서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동쪽은 영월군·평창군, 서쪽은 경기도 여주군·양평군, 북쪽은 횡성군, 남쪽은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와 접한다.

영동고속도로와 국도(5·19·42번), 지방도(396·401·402·404·599번), 군도(13개 노선)가 시를 중심으로 동서 또는 남북으로 통하며, 철도는 영동지역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수송한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중앙선은 시가지를 가로지르고, 시내에는 원주·반곡·판대·간현·동화·만종·치악·신림역 등 8개 역이 있어 국토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한다.

남동부는 백두대간에서 갈라진 한강기맥이 남서를 향해 치달고, 치악산의 남대봉(1,182m)·비로봉(1,288m)·삼봉·향로봉(1,043m) 등이 높고 험준한 산지를 이룬다. 반면에 북서부는 비교적 완경사를 이루며 덕고산(528m)·관포산(362m) 등이 남서로 내달아 원주분지와 산록완사면, 낮은 구릉지대를 펼쳐 놓는다.

또 **섬강**·원주천 등이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간현·문막 일대의 넓고 기름진 충적평야를 형성한 뒤 흥호리 부근에서 **남한강**으로 흘러든다.

내륙지역에 있어 기온의 연교차가 크고, 여름에는 뽕새바람의 영향으로 가뭄이 심하다. 1월 평균기온은 -4.8℃, 8월 평균기온 24.5℃, 연평균기온 10.8℃(평년값 기준)이고, 최고기온은 38.5℃(1939년 7월), 최저기온은 -29.9℃(1923년 1월)를 기록하였다. 연평균 강수량은 1,290.9mm이다.

<신륵사>

신라 진평왕(眞平王) 때 원효(元曉)가 창건하였다고 하나 확실한 근거는 없다. 고려 말인 1376년(우왕 2) 나옹(懶翁) 혜근(惠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한데, 200여 칸에 달하는 대찰이었다고 하며, 1472년(조선 성종 3)에는 영릉 원찰(英陵願刹)로 삼아 보은사(報恩寺)라고 불렀다.

신륵사로 부르게 된 유래는 몇 가지 설이 전해지고 있다. 그 하나는 “미륵(혜근을 가리킴)이, 또는 혜근이 신기한 굴레로 용마(龍馬)를 막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려 고종 때 건너마을에서 용마가 나타나, 걸잡을 수 없이 사나우므로 사람들이 붙잡을 수가 없었는데, 이 때 인당대사(印塘大師)가 나서서 고삐를 잡아 말이 순해졌으므로, 신력(神力)으로 말을 제압하였다 하여 절 이름을 신륵사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려 때부터 ‘벽절’이라 불려지기도 하였는데, 이는 경내의 동대(東臺) 위에 있는 다층전탑(多層塼塔)을 벽돌로 쌓은 데서 유래한 것이다.

이 절의 중요문화재로는 보물 제180호인 조사당(祖師堂), 보물 제225호인 다층석탑, 보물 제226호인 다층전탑, 보물 제228호인 보제존자석종(普濟尊者石鐘), 보물 제229호인 보제존자 석종비(普濟尊者石鐘碑), 보물 제230호인 대장각기비(大藏閣記碑), 보물 제231호인 석등이 있으며, 유형문화재로는 극락보전(極樂寶殿) 과 그이외의 부속건물로 구룡루(九龍樓) · 명부전(冥府殿) · 시왕전(十王殿) · 산신당 · 육각정 등이 있다.



<동해>

아시아 대륙 북동부 한반도 및 러시아 연방령 연해 지방과 일본 열도·사할린섬 등으로 둘러싸인 태평양의 연해. (면적: 107만km², 길이: 1,700km)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사기》에서 기원전 37년에 해당하는 고구려 동명왕에 대한 기술에서 처음 보이며, 광개토태왕릉비에도 동해라는 명칭이 새겨져 있다. 이는 8세기부터 사용된 일본이라는 국호보다 700년이난 앞선 것이다. 조선시대인 16세기 이후에 제작된 고지도에서도 동해라는 명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동해를 조선해(朝鮮海) 또는 창해(蒼海)라고도 하였다.

일본에서도 19세기까지는 일본서해와 타라해 그리고 조선해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해라는 명칭은 마테오리치가 1602년에 제작한 세계지도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므로 동해보다 1600여 년이나 뒤진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제강점기인 1929년 국제수리기구에서 발간한 《해양의 경계》 초판에는 일본해라는 이름만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일본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며, 한국 정부는 동해 명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저지형은 한반도 쪽에 접한 해저가 복잡하고, 급경사를 이루어 대륙붕의 면적은 극히 좁다. 대륙붕은 해안에서 15km 내외의 너비로 발달되어 있을 뿐이고 이것을 벗어나면 수심이 깊은 심해(深海)가 된다. 동해의 대륙붕 면적은 21만km²로서 전체 면적의 1/5밖에 안 된다. 그러나 3,000m 이상의 심해부는 약 30만km²나 되며 제일 깊은 곳은 북동쪽 오지리섬[尾尻島] 부근의 3,762m이고, 평균수심은 1,530m이다.

대체로 수심이 깊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보다 서부가 깊고, 남부보다 북부가 깊다. 해저지형은 북반부가 단순하고 남반부는 복잡하다.

동해는 수심이 깊어 어로기술의 발달이 미약했던 옛날에는 어장으로서의 이용가치가 적었다. 《세종실록지리지》에 나타난 어량(漁梁:어장)을 보면, 황해안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데 비하여 동해안에는 수를 손꼽을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계 4대어장의 하나인 북태평양서부어장 중에서 중심어장의 일부가 되고 있다.

<망상해변>

목호 북쪽 4km, 옥계(玉溪) 남동쪽 4km 지점에 있으며, 도(道)가 지정한 국민관광지이다. 해안은 북쪽 용바위에서 남쪽 대진(大津) 암초까지 너비 500m, 길이 5km의 좁고 긴 백사장이 펼쳐져 있다. 수심이 깊고 파도가 거세어 해수욕장의 개설이 지연되었으나, 북평 임해공업단지와 목호항(港)의 시설 확장과 더불어 강릉~삼척 간을 연결하는 해안 관광지로 적합하여 급속한 발전을 보였다. 연안 수역에는 오징어·소라·해삼·멍게·꽃게·광어 등의 해산물도 풍부하여 관광·피서객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한알학교>

한알학교는 일찍이 '나락 한 알 속에 우주가 있다'는 무위당 장일순선생의 말씀 중 '한 알'을 교명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한알학교는 모든 생명개체가 그물코처럼 얽혀 또한 우주를 이루고 있음을 압니다. 또한 생명개체 하나 하나가 우주를 머금고 있기에 아이들을 하늘을 머금은 한 알로 모시고, 생명의 꽃을 피우도록 돕는 배움터입니다.

교육은 가르침보다 배움이 먼저이고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배움의 표상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은 마음과 삶, 지식 수행을 할 것이며 아이들에게 배움의 힘을 길러주는 교육을 할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태어나서 온전한 생명으로서 성장하고 깨우칩니다. 또한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되돌아갑니다.

한알학교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함께 하며 생명의 온전성을 갖추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와 함께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교사와 함께 배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터인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배웁니다. 그리고 보다 크게는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자연에서 배움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한알학교는 가정과 학교가 있는 남한강과 단강 마을 및 원주지역사회와 치악산과 함께 성장 하는 생명평화교육을 지향하며, 다음과 같은 교육운영원칙을 지키고자 합니다.

한알학교는 생명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을 돕고자 합니다.

한알학교는 배움의 힘에 기초해 스승을 찾아 대화하며,

스스로 배우는 학교를 지향 합니다.

한알학교의 교사와 학생은 지혜에 이르는 지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알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이웃과 더불어 사는 건강한 노동과 살림을 배웁니다.

한알학교는 모든 생명을 모시고 살리는 경천(敬天) 경인(敬人) 경물(敬物)의

삶을 지향합니다.

한알학교의 주인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지역사회와 자연입니다.

한알학교는 자연과 더불어 홀로 있음으로써 깨닫고,

사람과 함께 사는 삶을 실천함으로써 온전해지는 학교이고자 합니다.



주소: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단강리 1469-2 (옛 단강초등학교) 한알학교 (Hanal School)
전화: 033) 764-4789

6월 민주 항쟁

5공화국은 중앙정보부같은 정보통치기관이 판을 치고, 말한번 잘못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끌려가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고문을 당하던 시기였다.

이 5공화국의 말기쯤인 1987년 1월 14일에 물고문으로 서울대생 박종철군이 죽은 사건이 일어났다. 마침 그때는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뽑을 것이냐, 간접선거로 뽑을 것이냐 하는 논의가 뜨겁던 때였기 때문에 이 사건은 큰 파문을 몰고 왔다. 그 파장은 추모대회와 평화대행진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민주헌법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라는 범국민적 기구를 탄생시켰다. 순결한 한 대학생을 고문으로 죽여놓고서도 발뺌을 하는 그 부도덕성이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던 것이다.

이런 흐름에 위기를 느낀 당시 정권은 4월 13일, 대통령 직선을 위해 법을 고치는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른바 "호헌조치"를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들은 더욱 큰 분노를 느끼면서 불같이 일어났다. 호헌반대 여론이 각계각층으로 번지면서 교수, 교사, 시민단체, 예술인, 연예인 등이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그러던 중에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자 그 동안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던 시민들도 거리로 나섰다. 6월 10일, 민정당이 노태우 대표위원을 대통령후보로 추대하던 그날, 전국에서는 "독재타도", "직선제 쟁취"의 함성이 온종일 메아리쳤다. 6월 26일에 있었던 평화대행진의 날에는 전국에서 1백 80여 만명의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또한 항의의 표시로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전국의 교회와 사찰에서는 일제히 종을 쳤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자 마침내 6월 29일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뜻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내용의 "시국수습을 위한 8개항"을 선언하였다.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다. 이러한 6월 민주항쟁은 진정한 민주화 시대의 발판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사회 각 부문마다 군사문화 추방과 민주화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우리 민족의 최대과제인 민족통일의 물꼬도 조금씩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3대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이 약속했던 6.29선언의 민주화 조치를 그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실천하지 않았다.



6.15 공동선언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대	한	민	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	통	국	령	국 방 위 원 장
김	대	중	중	김 정 일

나를 깨우는 행복한 하루

- 함께 쓰고 나누는 일기 -

- 01 사공이 아주 많으면 배가 어떻게 되나?
- 02 동생과 형이 싸우는데 엄마가 동생 편을 드는 세상을 뭐라 할까?
- 03 보내기 싫을 때 내는 것은?
- 04 천재 남편과 바보 아내가 결혼하면 어떤 아이를 낳을까?
- 05 사람의 몸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기름은?

[움직이는 학교 첫 날]

2011년 6월 14일 (화)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 06 재미의 목구멍보다 작은 것은?
- 07 사업상 목욕을 할 수 없는 사람은?
- 08 꼬끼리와 고래를 결혼시켜서 태어난 말은?
- 09 이혼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0 수학책을 난로위에 놓으면?

[움직이는 학교 두 번째 날]

2011년 6월 15일 (수) 날씨_____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 12 자기들만이 옳다는 사람들만 사는 집은?
- 13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추잡스럽기 짝이 없는 개는?
- 14 꿈이 목욕하는 곳은?
- 15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은?

[움직이는 학교 셋 번째 날]

2011년 6월 16일 (목) 날씨_____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16 넘어진 펭귄이 일어나서 걷다가 또 넘어졌다. 뭐라고 말했을까?

17 사회가 망하면?

18 도둑이 없는 도둑마을은 어딘가?

19 아주 오래 전에 건설된 다리를 무엇이라 부르나?

20 구렁이의 형은 '십령이'라고 한다. 그럼 구렁이의 동생은?

[움직이는 학교 네 번째 날]

2011년 6월 17일 (금)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21 하늘이 파란 이유는?

22 음력 설날에만 사용하는 물은?

23 김치만두가 김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24 동물원의 배고픈 사자가 철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한 말은?

[움직이는 학교 다섯 번째 날]

2011년 6월 18일 (토) 날씨_____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26 남자에게는 있고 여자에게는 없는 것, 아줌마에겐 있고 아저씨에겐 없는 것, 총각에겐 있고 처녀에겐 없는 것은?

27 체육시간에 피구를 하다가 여학생 두 명이 죽었다. 어떻게 된 걸까?

28 화장실에 가면 소변과 대변 중 어느 것이 먼저 나올까?

29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돈은?

30 먹고 살기 위해 한 가지씩 배워 두면 좋은 술은?

[움직이는 학교 여섯 번째 날]

2011년 6월 19일 (일)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 31 암탉은 어느 집에서 시집왔을까?
- 32 돼지가 꼬리를 흔드는 이유는?
- 33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여자는?
- 34 우리가 수업시간에 자는 이유는?
- 35 꿩 먹고, 알도 먹는 사람은?

[움직이는 학교 일곱 번째 날]

2011년 6월 20일 (월) 날씨_____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36 바나나 우유가 웃으면?

37 코끼리 2마리가 서로 싸워, 둘 다 코가 떨어져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

38 '이 세상에서 제일 잘 생긴 사람'을 1글자로 표현하면?

39 사냥꾼에게 생포된 곰이 하는 말은?.

40 겁없는 쥐가 한마디하자 고양이가 도망갔다. 쥐가 한 말은?

[움직이는 학교 여덟 번째 날]

2011년 6월 21일 (화)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41 편식이 아무리 심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42 바나나가 웃으면?

44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장 좋아하는 폭포는?

45 공처가와 애처가의 공통점은?

[움직이는 학교 아홉 번째 날]

2011년 6월 22일 (수)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46 낮 놓고 기억 자도 모르는 이유는?

47 성냥만 있고 담배는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

48 음식에 얹은 파리를 내쫓자, 파리가 한 말은?

49 아빠가 일어나면, 엄마는 책보는 곳은 어디일까?

50 미국인 과학자가 우리나라의 고춧가루의 성분을 조사했더니 이미 밝혀진 성분 외에 두 가지가 더 나왔다고 한다. 이것은?

[움직이는 학교 열 번째 날]

2011년 6월 23일 (목)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 51 담배만 있고 불이 없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나?
- 52 지구상에서 공룡이 멸종한 이유는?
- 54 안경이 들어가 있으면 안경집, 모래가 들어가 있으면?
- 55 다섯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움직이는 학교 열한 번째 날]

2011년 6월 24일(금)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56 몸을 버리고 결국 짓밟히는 것은?

57 불만 있는 사람이란?

58 사람의 욕심을 1글자로 표현하면?

59 긴 막대기가 놓여있는데, 이것을 손대지 않고 짧게 만들려면?

[움직이는 학교 열두 번째 날]

2011년 6월25일(토)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 61 팔취의 깨진 독을 수리해 준 사람은?
- 62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은 왜 서 있을까?
- 63 신혼 첫날 신랑이 신부를 안아 영화처럼 침대 위에 던졌는데, 신부가 기절한 이유는?
- 64 네 그루의 나무를 심으면?
- 65 로또복권 당첨확률을 2배 올리는 방법은?

[움직이는 학교 열세 번째 날]

2011년 6월 26일(일) 날씨_____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66 만 원짜리와 천 원짜리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주어야 할까?

67 생활의 지혜가 담긴 속담 중 최고의 거짓말을 하는 속담은?

68 뒤에서 부르면 돌아보는 이유는?

69 목욕탕에 가면 두고 나오는 것은?

70 나폴레옹은 전쟁터에 나갈때 왜 항상 빨간벨트를 찻을까?

[움직이는 학교 열네 번째 날]

2011년 6월 27일(월)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71 여자가 주로 바르고, 남자가 즐겨 먹는 것은?

73 로봇 형사 '가제트'의 성은? 마징

74 '너는 진짜 미남이다'를 4자로 표현하면? 말도 안 돼

75 변호사, 검사, 판사 중 누가 제일 큰 모자를 쓸까? 머리 큰 사람

[움직이는 학교 열다섯 번째 날]

2011년 6월 28일(화) 날씨 _____

♪ 오늘 나의 기분과 느낌은?

오늘 새로운 것과 좋았던 것은?

♪ 오늘 하루 기억에 남거나 꼭 기억해두어야 할 이야기는?

♪ 반성합니다.

칭찬합니다.

♪ 내일은 뭘하지?

옆사람이나 다른 사람은 어떤가요?

76 기린의 목이 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78 바지 끝이 짧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

79 바닷물이 짠 이유는? 물고기가 땀을 내면서 뛰어 놀아서

80 '호프'로는 맥주를 만들고 '옛기름'으로는 감주를 만든다.

그러면 '돈'으로는 무엇을 만드나?

[2011년 햇반 움직이는 학교, 함께 정리하는 시간]

* 2011학년도 움직이는 학교 나만의 하이라이트!!!!(기억하고픈것, 즐겁고 힘들었던 것 등등)

*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거울에 비춰본다면 (자기평가)

*내일이면 집에 가는군요. 마음에 담긴 작별인사를 나눠요. 즐겁고, 힘들고, 외로웠던 순간을 서로 격려하면서 그냥 그냥 안아주어요.

노래만큼 좋은 세상

유인혁 글·곡

C G/B Am Em/G

내 작은 목소리로 - 다른 이들을 - 노래 하고 -

F C/E Dm7 G

너와나의 목소리로 - 세상을 노래 하면 -

C G/B Am Em/G F C

언젠간 이룰까 - 야 노래만큼 - 좋은 세상 우리

F C Dm7 G C C G/B

모두의 - 힘으 - 로 - 우리가 만 - 들 세상 -

Am Em F G/F C /B

내영혼의 - 문을 두드리는 - 노래에 마음을 열 고

Am Em F D7/F# Gsus4 G

나만의 좁디좁은 겁 질을 - 깨고 날개를 펼 치면 -

C G/B Am Fm/G F G C /B

당신을 만나고 - 또 살아갈 힘 - 이 되어 -

Am Em F D7/F# G

거친 이 세상길 - 헤쳐 나가리 - 그리고

C G/B Am Em/G F G C /B

소중한 모든걸 - 지켜갈 힘 - 이 되어 -

Am G/B C F D/F# Dm7/G G7 C

내 맘에 지지않 - 는 별 하나로 - 뜨 지

평화가 무엇이나

글 문정현, 조약골
곡 조약골

공장에서 쫓겨난 노동자가 원직복직하는 것이 평화
두꺼비 맹꽁이 도롱뇽이 서식처 잃지 않는 것이 평화
가고 싶은 곳을 장애인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평화
이 땅을 일궈온 농민들이 (더이상) 빼앗기지 않는 것이 평화
성매매 성폭력 성차별도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
군대와 전쟁이 없는 세상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것이 평화

배고픔이 없는 세상 서러움이 없는 세상
쫓겨나지 않는 세상 군림하지 않는 세상

빼앗긴 자 힘없는 자 마주보고 손을 잡자
새세상이 다가온다 노래하며 춤을 추자

- 81 사람의 신체 일부를 볶아먹고 사는 사람은?
- 82 돼지가 열 받으면 어떻게 될까?
- 84 '곰'을 뒤집어 놓으면 '문'이 된다. '소'를 뒤집어 놓으면?
- 85 하늘에 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글·곡 안치환

강물같은 노래를 품고사는 사람은 알게되지 음 알게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음
지독한 외로움에 찢찢매본 사람은 알게되지 음 알게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질푸른 숲이되고 산이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것을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지독한 외로움에 찢찢매본 사람은 알게되지 음 알게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이야말로 질푸른 숲이되고 산이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것을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길 품고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사랑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백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백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백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백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백지-

마음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당신을 위한 백지-

바다에 갔을 때의 마음가짐

0. 그냥 수영한다.
1. 상어를 만나겠다는 무모한 마음을 품고
바다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다
2. 물에 빠져죽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준비운동을 한다.
3. 위험한 장난은 치지 않는다.
(수영하는 친구의 다리를 물기,
친구 머리를 물속에 박기 등)
4. 친구가 물고기도 아닌데 낚시 바늘에 걸리지 않도록
근처의 쓰레기와 낚시 바늘을 줍지는 못할망정
쓰레기 버리지 마.
5. 위의 내용을 잘 실천한 착한 청소년은 중국집에 가서
피자를 먹는 생각을 해도 좋다.
6. 모래사장에서 그냥 그냥 즐겨요.

86 하늘에 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87 하늘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88 '죽이다'의 반대말은?

89 배꼽파기 배꼽파기 배꼽파기.... 를 계속하면?

90 호랑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었다. 그런데 토끼가 있는 것 이었다.

그래서 호랑이가 토끼에게 뭐라 했을까?